

2018년생 아이, 2100년 까지 산다

통계청 '2018년 생명표'... 지난해 30세 男 80.4세, 女 86.3세

한국인 기대수명 OECD 평균보다 높아... 일본보다는 낮아



인구동향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생명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출생아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이라고 밝혔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으로 0.1년, 여자는 85.7년으로 0.0년이 각각 증가했다(사진 : 김진, 통계청).

2018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82.7세까지 살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감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대수명을 추정한 내용 등이 담겼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장기적 상승추세지만 전년에 비해 오르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9.7년, 여

자는 85.7년으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기대수명은 지난해에 비해 0.1년 늘었고 여자는 늘지 않아 격차는 6.0년으로 줄었다. 이 격차는 1985년 8.6년까지 벌어졌던 뒤부터 줄곧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기대수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남자 기대수명은 OECD 평균 78.1년보다 1.7년 높았다. 여자 기대수명은 OECD 평균 83.4년보다 2.4년 높았다. 다만 일본 남녀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 남자 81.1년 여자 87.3년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가장 비중이 높은 사망 원인은 암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출생한 아이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26.3%, 여자가 15.9%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은 남녀 전체 기준 2008년 3.2%에서 2017년 8.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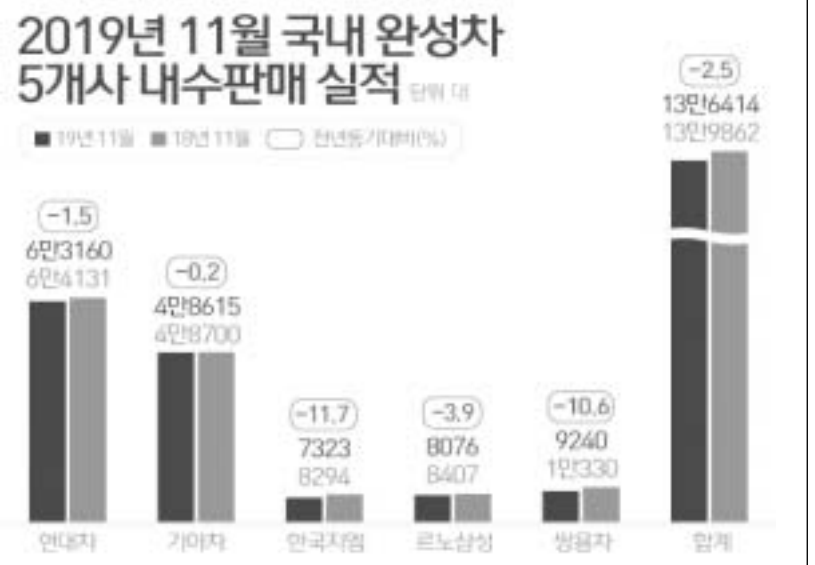
2018년 10.0%로 증가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남녀 출생아 기준으로 64.4년일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64.0년으로 여자 64.9년보다 조금 더 짧았으며, 이 기간은 남녀 모두 짧아지는 추세다. 예상되는 투병기간은 남성이 15.7년, 여성은 20.9년일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8년에 30세인 남자는 앞으로 50.4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연령 여자는 56.3세 더 살게 된다. 20세의 경우 남자는 60.2년, 여자는 66.1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수명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의료보험 서비스나 건강검진 체계가 잘 돼있는 탓"이라며 "병원 접근성이 용이하고 건강검진 범위가 확대되다보니 암·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관리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렴에 의한 사망이 증가 추세인 것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1~2월 사망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이상기후에 따라 겨울한파가 심해진 것이 원인"이라며 "인구가 고령화되고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폐렴 사망자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파격, 최대 할인” 연말 자동차 판촉

연말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가 최대 50만원 인센티브의 판촉전을 벌인다. 12월 중고차 감가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신차구매를 꺼리는 시기지만, 큰 폭의 할인으로 소비자 마음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4일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외국계 국내 완성차 3사는 이달 실적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할인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르노삼성은 자사 볼륨 모델인 SM6와 QM6에 각각 최대 500만원, 450만원에 달하는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SM6와 QM6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르노삼성 내수 전체 판매량(7만6879대) 중 71.1%(5만4626대)를 차지하는 핵심 모델이다.

프리미엄 중형 세단 2020년형 SM6 GDe와 LPe 장애인용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25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용품·보증연장) 또는 현금 최대 200만원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QM6 GDe 모델 구매 고객 역시 최대 200만원의 구입비, 현금 50만원 지원 중 선택이 가능하다. LPe, dCi 구매 때도 구입비(150만원) 및 현금(50만)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할부로 구매하면 최대 36개월 1.9% 최대 60개월 3.9%의 낮은 금리가 제공된다.

SM6와 QM6 구매 고객 모두에게 5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30만원 추가 할인, 재구매 시 최대 200만원의 더블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면 20만원 추가 할인도 받는다. SM7가솔린 모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의 유류비도 지급한다. 마스터 버스(13인승) 구매 고객에게도 150만원 상당의 용품 구입비 또는 현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전기차 SM3 Z.E.를 구매하면 25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6개월 만에 내수 9000대 판매(9240대)를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쌍용차도 고베를 쫓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내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 12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쌍용차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쌍용차는 차 구매 금액의 3.5%인 개별소비세 전액 지원에 추가 할인을 더해 차종별로 최고 10%까지 할인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20일까지 출고 시 전 차종 대상 아이니비 블랙박스를 무상제공한다.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매할 경우 각각 3.9%(72개월), 5.9%(120개월)의 이율이 적용된다.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 등은 선수금 없이 0.9~5.9%(36~120개월)의 저렴한 이율 또는 장기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가 없는 외국계 완성차 3사의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 새 벌써 5% 감소...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무너지나

계층 이동 정체 가구 10년 사이 75%→80%

일자리 확보가 계층 상승의 최우선 요소

지난 10년 사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가구의 계층 이동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2007년~2008년 기간 75.7%에서 2016~2017년 사이에는 80.8%로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1년간 계층이 상승한 가구 비중은 11.9%에서 9.1%로 줄었으며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 비중도 12.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비교 범위를 2년, 3년으로 확장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7년~2009년 기간과 2015년

~2017년 기간을 비교했을 때도 ‘변동 없음’ 비중이 73.2%에서 75.5%로 늘었고 계층 하락과 계층 상승 비중은 각각 13.5%에서 13.1%, 13.2%에서 11.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계층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취업 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해당 가구가 중산층(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150%)에 속할 가능성이 40%p 증가하는 반면 임시직일 경우 20%p포인트(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일자리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 실장은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자립 지원, 공정한 기회 및 경쟁 그리고 공정한 성과와 보상을 통해 계층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니아대우, 전장

라인 교체 검토

위니아대우(옛 대우전자)가 광주공장의 세탁기 생산 라인을 전장(전자·전기 장비)부품 생산 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공장 이전건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노사를 광주시가 중재에 나섰다 현재 위니아대우 노사는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이 노사 대화 자리에서 세탁기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대신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PBA 물량을 광주공장으로 돌리는 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사측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컨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